경인년庚寅年 호랑이의 해 세시기

權 在 琮
주간

▲

2010년 경인년庚寅年 호랑이 해가 밝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를 12가지 동물로 구분하고 그해에 태어난 사람을 그 동물로 빗대어 상징하고 있다. 이런 관습은 대략 통일신라 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호랑이에 대해 우리민족 정서에서는 두려움과 친근함이 함께 작용한다. 우리의 선조들은 백수의 왕인 호랑이를 무서운 존재로만 보기보다는 단군설화에서 곰과 함께 쑥과 마늘을 먹는 호랑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까치호랑이 등으로 매기면서 신성과 친근의 동물로 보는 시각이 무게를 더했다. 동시에 산군자山君子、산신령山神靈、산중영웅山中英雄이라 이름하면서 숭배의 대상으로 호랑이를 보는 시각도 있다. 호랑이의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살피면서 호랑이해를 맞아 호랑이와 관련된 것을 모아보았다.

■우리 민족정서에서의 호랑이

우리 한민족 마음속에 호랑이는 일찍부터 자리잡아 민족문화 형성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두려움과 친근함의 대상이면서 신앙의 대상인 호랑이는 각종 그림과 민속、속담 등에 자주 등장한다. 단군설화에서 인간이 되기를 원하여 곰과 함께 등장하는 호랑이를 시원始原으로 해서, 경남 울산시 언양면 대곡리의 선사시대 암각화에는 호랑이 그림 9점이 나타타고 있다. 이중 먹이를 노리는 호랑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도 있는데 이는 선사시대부터 우리 선조들이 호랑이를 세밀히 관찰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역사기록으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호랑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친근함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신라 진덕여왕 때 경주 남산에서 김알천金閼川과 김유신金庾信 등이 모여 국사를 의논하는데 큰 호랑이가 뛰어들었다. 모든 사람이 놀라 일어났으나 알천공만이 태연히 얘기하면서 호랑이의 꼬리를 붙잡아 땅에 메어쳐 죽였다. 이후 그를 수석에 앉혔다’는 기록이 있다.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사람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인 셈이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어린아이 때 수풀에 눕혔더니 범이 와서 젖을 먹였다는 기록, 흥륜사에서 탑돌이를 하던 김현金現이 호랑이를 만나 비련의 사랑을 나눈 뒤 출세했다는 내용, 즉 김현감호金現感虎 등의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우리민족이 호랑이와 친근한 것은 중국의 기록에도 등장한다. 후한서後漢書 동이전東夷傳 예조濊條나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예조濊條에 ‘이곳 사람들이 범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으로 섬긴다’는 기록이 있고 산해경山海經에도 ‘군자국 사람들은 아름다운 털을 가진 큰 호랑이 두 마리를 부린다’고 적고 있다. 또 낙랑 출토 유물이나 신라 토우土偶에도 호랑이는 등장하며, 서기 5~6세기 백제에서는 남성용 소변기를 호랑이가 입을 벌린 형태로 만들기도 했다. 고구려 고분인 무용총舞踊塚 벽화 ‘수렵도’에서는 박진감 넘치는 호랑이 사냥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단군설화처럼 우리민족의 호랑이에 대한 심성을 잘 나타낸다. 말을 탄 엽사가 활시위를 팽팽히 당기는 순간에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호랑이에 적중하는 상황의 그림이다. 그런데 이 화살을 자세히 살펴보면 목표물을 꿰뚫는 화살이 아니라 소리내어 우는 화살, 즉 명적鳴鏑이라는 것이다. 이 명적은 석류모양을 했는데 소리만 요란하고 목표물 호랑이가 맞는다 해도 기절하는 정도인 것이다. 고려 공민왕이 그렸다는 전공민왕필傳恭愍王筆 음산대렵도陰山大獵圖에서는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호랑이를 사냥하는 장관이 펼쳐진다. 여기서 엽사의 입성이 호복胡服인데 이는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고려한 배려로 보인다. 즉 우리의 성정이나 생활습성에서 호랑이를 잡는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배려로 중국옷 차림새를 택했다고 한다. 또 조선시대에도 정렵征獵이라는 왕정의 중요행사에서도 기껏해야 매사냥 정도를 행한 것으로 왕조실록에 적혀 있다. 이렇게 우리민족은 호랑이 사냥을 하긴 했으나 다른 민족과는 달리 살륙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시풍속에 나타난 호랑이

정초가 되면 누구나 자기가 속한 띠 동물의 생김새나 습성, 다양한 상징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꿈을 풀어들 본다. 띠동물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재미로 그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범띠 여자는 팔자가 세다’는 속설에 따라 임신부들은 호랑이 해가 다가올 경우 음력설 전에 아이를 낳으려는 경향이 있다. 10간 12지에서 호랑이는 방향으로는 동동북쪽, 시간으로는 상오 3시부터 5시, 달로는 음력 1월을 지키는 방위신이며 시간신이다. 호랑이 꿈은 길몽중 으뜸이며 벼슬길에 나아가거나 큰 자리로 승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통 호랑이는 몸길이 3m, 몸무게 300kg의 거수이다. 먹이를 찾아 하루 평균 80~100km를 달리고 걸을 때의 보폭은 80cm에 달하며 항상 뒷발이 앞발 자국을 되밟는 습성이 있다. 또 호랑이는 일출과 일몰 직전을 가장 좋아하고 자기가 잡은 신선한 야생동물을 먹는다. 임금이 지닌 명검은 사인검四寅劍인데 이는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 인시寅時로 네개의 인寅이 맞아떨어지는 때에 제작하는 검劍이다. 이 사인검은 검중 최고인데 이런 사주의 날이 맞는 수에 따라 3인검寅劍, 2인검寅劍 등으로 불리며 그 격格이 낮아진다.

조선 후기에는 기쁜 소식을 바란다는 의미에서 민화로 까치호랑이 그림을 자주 그렸다. 세시풍속에도 호랑이는 단골이다. 호랑이가 액을 막는다하여 정초가 되면 민가에서 호랑이 그림을 대문에 붙였으며, 음력 정월 첫째 범날에는 여자의 바깥출입을 삼갔다. 여자가 남의 집에서 소대변을 보면 그 집사람이 호환을 당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황해도 봉산군은 음력 정월 열나흗날 호환을 막기 위해 범몰이를 했으며, 충남 청양에서도 정월 대보름에 액운을 막기 위해 범놀이를 했다. 또 인조 4년, 1626년 경북 예천군 용문면 두간斗澗에서는 호환의 남편을 맨몸으로 싸워 구출한 가평이씨嘉平李氏의 행의를 기려 나라에서 내린 열녀정려각烈女旌閭閣이 있는데 그 주손胄孫 권규선權圭瑄씨는 오늘도 이 정려를 지키고 있다.

■호랑이 신앙

민속학자 전 국립민속박물관장 조유전趙由典씨는 호랑이에 얽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말했다. ‘호랑이의 원초적인 모습은 진보、독립、모험、투쟁 등의 속성을 가지며 삶에 대한 무한한 욕망을 품은 현실적 동물로 표현된다. 우리민족에 있어서 호랑이는 재앙을 몰고 오는 포악한 맹수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사악한 잡귀를 물리칠 수 있는 신령스러운 동물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예의바른 동물로 대접받기도 하고 골탕을 먹일 수 있는 어리석은 동물로 전락되기도 한다. 우리 조상은 호랑이를 좋으면서 싫어했고 무서워하면서 우러러보았다. 신통력을 지닌 영물로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의를 지키고 약자弱者와 효자孝子와 의인義人을 도우며 부정함을 멀리하는 동물로 등장했다.’

호랑이의 습성을 바탕으로 호랑이띠에 태어난 여성은 흔히 팔자가 세다고 한다. 그것은 호랑이의 기질이 여성에 맞지 않는다는 고루한 생각에서 비롯됐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진취적인 여성으로 상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호랑이띠에 태어난 사람은 일찍 성숙하여 만인을 통솔할 수 있는 재능을 타고 나며 출세가 빠르고 위엄도 있다고 했다.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책임감이 많다고 하며 사주四柱에 호랑이가 들어간 사람은 종교가와 예술가가 많다는 것이다. 호랑이와 관련된 민속에는, 꿈에 호랑이가 집으로 들어오면 벼슬이 높아진다고 한 것은 관직이나 권세의 상징으로서 호랑이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둘거나 성급하지도 않아 대인의 풍모가 번득이며, 유사시에는 하룻밤에 천리를 오갈만한 주력走力이 있는 호랑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민족 특유의 강인함을 나타내고 끈질김과 용맹함이 상징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 밑바닥에 호랑이의 얼이 존재함을 정명正明해주고 있는 것이다.

■호랑이 속담 · 성어

속담에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은 상대가 절대적 권위와 힘을 지님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곶감을 무서워하는’ 어수룩한 동물로도 나타나는 호랑이는 우리에게 친근한 것으로도 여겨진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많이 살아 ‘호랑이나라’로도 불렸으며 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가 나타나는 데 모두가 저어치 않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호랑이 소재의 속담 또한 풍성하다. ‘새벽 호랑이가 중이나 개를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급해지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납기는 새끼 가진 범’이라는 소리는 호랑이의 모성애에 빗대 사나운 사람을 비유한 말이고 ‘범 가는 데 바람 간다’는 언제나 함께 다닌다, ‘범 나비 잡아먹듯’은 먹은 듯 만 듯할 때, ‘범도 새끼 둔 골을 두남을 둔다’는 악한 사람도 제 자식만은 사랑한다, ‘새벽 호랑이’는 세력을 잃고 물러나게 된 신세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며, 호가호위狐假虎威는 남의 권세를 빌어 위세를 부림, 호랑지국虎狼之國은 호랑이와 승냥이의 나라라는 뜻으로 포악한 나라를 지칭하며 통일국가인 진秦나라를 일컫는 말이기도 했다. 호사유피虎死留皮 인사유명人死留名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용호상박龍虎相搏은 용과 범이 싸우듯 두 강자끼리 서로 겨룸을 이름이며 호시탐탐虎視耽耽은 범이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려본다는 뜻으로, 기회를 노리고 형세를 살핌을 뜻한다.

■산신각 탱화撑畵의 호랑이

우리 고유의 산신신앙山神信仰은 불교와 융합하면서 절마다 뒤쪽 으슥한 곳에 조그마한 산신각을 두고 있는데 그 안에 모신 탱화에는 호랑이가 편안하게 앉아 있는 산신을 감싸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꼬리에, 또는 눈에 포인트를 주어 신선한 감성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그런데 으레히 탱화속에는 호랑이와 사람모습 산신이 등장하거니와 사람모양 산신은 호랑이가 모습을 달리한 변화신變化神이라고 한다. 이렇게 호랑이는 여러 모습으로 우리민족의 감성에 다가왔다. 호랑이는 죽림맹호竹林猛虎로 대나무 숲에 출현하는 호랑이가 있는데, 이 그림은 잡귀를 물리친다는 벽사 邪의 뜻을 담았다.

해서 이런 호랑이의 영험으로,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로부터 야기된 오늘 우리나라의 실업대란 같은 것도 이 경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벽사의 신통력으로 말끔히 사라지고, 그리해서 우리나라에 청년일자리도 많이 생기게 되었으면 좋겠다.